

大陸棚 6 鑛區 시추

石油開發公社 - 技術資本 투입

에너지資源의 效率的 利用  
3 個法案 國會 通過

지난 11월 30日 開會된 今年度 定期國會 에서 에너지資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3 個法案이 통과되었다.

이 法案은 各部處간에 흩어져 있는 海洋開發 업무를 통합하고 産·學·研간의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것이 海洋開發法이며, 심각한 環境오염의 방지와 에너지自立이라는 차원에서 風·潮·波力發電 등 代替에너지開發을 향한 노력을 政府次元에서 수행토록 한것이 代替에너지開發促進法이다. 그리고 航空宇宙産業開發法은 自主國防과 高附加價値 및 技術集約의 첨단산업의 개발을 위한 法이다.

이 法案은 李祥義議員이 立法過程을 시종 주도했는데 「3面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半島國家인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결국 바다와 하늘의 開發 그리고 陸·海·空의 모든 에너지資源을 최고도로 이용해 보자」는 것이 이 3개 法律의 立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병커C油 增大 대비  
脫黃施設 설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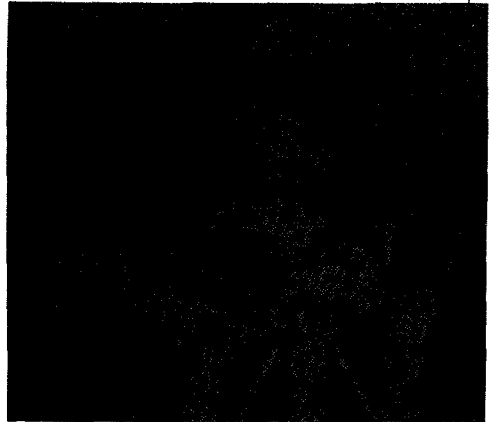
정부는 大氣汚染의 深化현상을 막고 低硫黃 병커C油 수송 증대에 대비, 國內 5 個 大型精 油社를 중심으로 重質油분해 및 脫黃施設을 확대하기로 유도했다.

지난 9월 7日 動資部에 따르면 大氣汚染을 改善하기 위해 低硫黃 병커C油 使用을 촉진한다는 政府方針에 의해 이의 使用量이 94년에는 하루 18萬 7千배럴 규모로 增加하는데 비해 生産量은 現在의 수준에서 크게 못벗어나 하루 약 900萬배럴의 供給차질을 빚어 심각한 수급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外國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技術과 우리가 만든 試錐船에 의한 大陸棚石油開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石油開發公社(代表 崔性澤)는 9月15日을 기해 蔚山에서 東쪽으로 100km 떨어진 6鑛區에서 石油開發을 위한 海底試錐에 들어 갔다.

動力資源部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地域이 斷層構造여서 石油보다는 가스가 埋藏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石油나 가스가 發見될 가능성은 2~4%라고 밝혔다.



水深 218m인 이 地域에서 海底 1900~2300 m 까지 파들어가는데 약 60日이 소요되는데 매장 이 확실할 경우 經濟性 여부는 來年 下半期에 나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國內 大陸棚 탐사를 모두 外國會社의 資本과 技術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 試錐作業은 우리의 資本 技術과 우리가 제조한 試錐船 斗星號에 의해 착수했다는 점에서 國內 大陸棚開發 史上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大陸棚시추는 지난 72年 월社가 6鑛區에서 처음으로 시추를 시작한 이래 14곳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石油나 가스가 發見되지는 않았었다.

試錐船 斗星號는 지난 82年 大宇조선이 만든 것으로 4,000톤의 積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內 國人 35명과 用役會社직원인 外國人 11명 등 모두 46명이 이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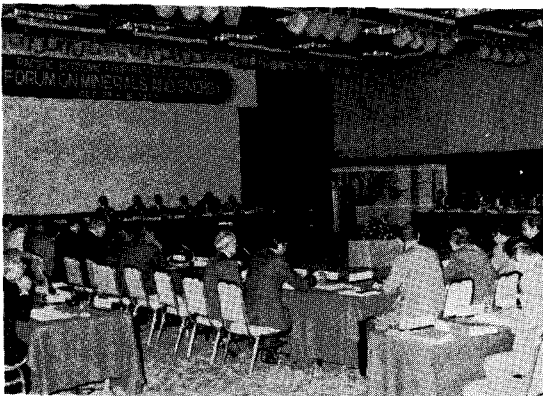
## 太平洋地域 鑛物에너지協議體 第2次 總會 開催

太平洋 經濟協力會議(PECC) 산하의 鑛物·에너지협의체(MEF) 제2차 總會가 MEF 事務局 주관하에 에너지經濟研究院(원장 이회성) 과 韓國太平洋協力委員會(의장 남덕우) 의 共同主催로 10月 28일부터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PECC 15개 회원국의 政府, 學界, 業界代表 각 5~7명을 비롯, 아시아開發銀行(ADB), 國際에너지機構(IEA), 아시아 太平洋開發機構(APDC) 등 有關 國際協力機關과 소련 및 멕시코의 傭저버 등 총 100여명이 이번 總會에 참가하여 世界 및 太平洋地域 에너지·鑛物시장의 주요 供給상황 변화를 전망, 평가하고 이들 변화가 太平洋地域 經濟發展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진단하게 되었다.

韓國側로서는 최근 중요시 되어 온 범아시아 太平洋 經濟協力機構 활동에의 積極的인 참여를 통해 太平洋 國家와의 經濟的·政治的인 유대를 강화하고 역내 國際協力機構內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한다는 점과 亞·太平洋 地域內의 鑛物·에너지 供給 및 교역현황과 향후의 시장변화에 대한 최근 정보 및 자료를 직접 수집함으로써 불확실한 國際 에너지자원환경에 대응하는 國內 에너지자원 문제의 合理的 解決方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MEF 총회의 서울개최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9, 30일 양일간의 本會議(개막시간 오전 8시



45분)에서 한국측의 이회성 에너지經濟研究院長, 곽상경 고려대 교수를 비롯 각국 대표 25명의 主題發表와 함께 참가자들의 討論이 있었다. 주요 주제별 本會議 進行日程은 다음과 같다.

### 호르무즈海峽 봉쇄돼도 油價 25弗넘지 않아

호르무즈海峽이 봉쇄되더라도 國際原油 價格은 배럴당 25달러를 넘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月 8日 大韓貿易振興公社가 내놓은“페르시아灣 情勢變動에 따른 油價展望” 보고서에 의하면 호르무즈海峽이 봉쇄될 경우 油價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까지 폭등하겠지만 世界原油 비축량이 30億 배럴에 이르는데다 여러 地域 産油國들의 増産으로 곧 2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金剛山댐 建設中止 촉구 世界法律家大會 결의

제13회 世界法律家大會가 지난 9月 6일부터 11日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세계 50여개국 저명한 法律家 1,000여명과 國內 法曹人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大會 國際環境法分科委員會에서는 北韓의 金剛山댐 建設과 有關 金剛山댐 建設은 긍정적 측면보다 경제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은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韓國政府의 平和的 해결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決議文은 共有水資源은 相互利益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共有水資源의 利用管理가 점점 선을 넘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明白한 國際法 違反이라고 지적했다.

### 發電技術向上 自立化 시급 鄭根謨 博士 研究 발표

2000年代 에너지關聯 핵심기술의 自立 基盤구축과 安定的인 공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長期的 에너지需給에 대응하는 技術保險政策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鄭根謨 博士(亞洲大 碩座教授·韓電顧問)는 지난 8月 13日 영동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韓國에너지經濟·政策研究會 月例討論會에 참석하여 「에너지 개발과 技術革新」이라는 主題發表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國家 총에너지消費量의 25%이상이 發電에 使用되고 있으므로 에너지節約이나 自立을 위해 發電技術의 向上과 自立化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原子力發電이 總發電量의 50%에 접근하고 있어 原子力發電의 技術自立과 安全性 확보가 우리나라 에너지技術 과제중 가장 뚜렷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節約設備투자 14個 鐵鋼業체 활발히 추진

鐵鋼業체들의 에너지節約을 위한 設備投資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8月 6日 관련업체에 따르면 仁川製鐵 江原産業, 韓寶鐵鋼 등 14個 鐵鋼業체들은 上半期中 264億 4千萬원의 資金을 에너지節約 설비투자에 활용했다.

鐵鋼業체들은 下半期에 들어서도 浦鐵의 제 1 냉연 연속소둔설비 增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에 에너지節約을 위한 투자액은 1,000億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鐵鋼업체들은 기존설비의 교체 및 최신 설비의 도입등으로 上半期中 에너지節約 效果를 거두어 절감액이 88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石炭채광 大單位化 촉진 賦存資源의 合理的개발

政府는 앞으로 非經濟炭鑛을 점차 정리하고 石炭産業의 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해 石炭採鑛인가 및 租鑛權 설정 認可制度를 제한운영하는 同時 石炭鑛業의 大單位化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月 16日 動資部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國內 有望賦存資源을 보다 合理的으로 개발하는 한편 國內 광업권자들의 權益保護를 위해 이와같이 現行 鑛業法을 改正해서 내년 1月 1日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海外資源開發投資 확대 油田 5個 買入개발

政府는 최근의 페르시아灣 사태 등으로 原油를 비롯한 主要 資源의 安定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는 90년까지 3,156億원을 投資하여 開發油田 5개를 買入하는 등 海外資源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8月 13日 動資部에 따르면 國際收支 赤字에 따른 여력을 海外資源의 직접 개발사업에 전용하기 위해 中·長期 海外資源開發計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長期的으로 海外資源 개발 투자에 대한 金利를 낮추고 稅制와 보험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다.

動資部는 오는 90년부터 國內所要 原油의 20%를 개발수입키로 하고 印尼 마투라 北에 멘 마리부 광구에 대한 탐사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는데 기개발유전확보는 油開公과 民間企業이 60대 40의 비율로 하고 소요자금의 50%를 石油事業基金에서 융자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海外資源開發 실적을 보면 石油의 경우 油公이 지난 2月 브라질 멕시코나 鑛區 지난 6月 에콰도르 제12鑛區에 신규 진출했으며 鑛物資源의 경우 韓·印尼資源이 인도네시아 파시르 有煙炭개발사업에 韓國電力이 美國의 크라우뷰트 우라늄鑛 개발사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 韓美 에너지協力 논의 美에너지省 차관보 來訪

지난 8月25日 訪韓中인 美國에너지省 다빈드·B·윌러 次官補 일행 5명은 科學技術處 朴肯植長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韓美양국간의 에너지관련 기술교류 및 교역증진에 관한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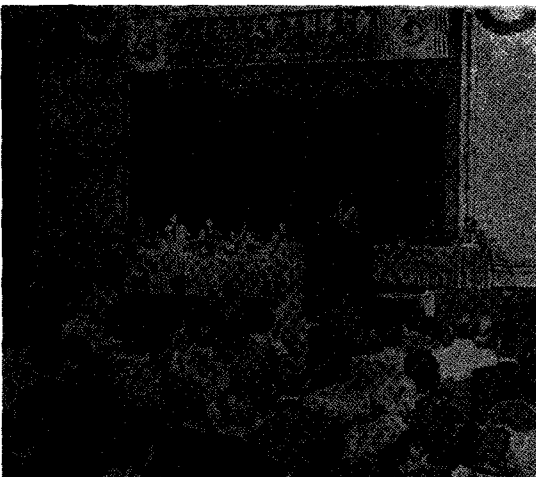
## 自然保護 資源共同 활용 太平洋科學大會에서

太平洋地域의 科學·人力 및 資源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主題로 한 太平洋科學大會가 지난 8月20日부터 30日까지 개최되었다.

이大會에서는 自然保護와 資源의 共同 활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4個項의 各國 政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에서 各國 政府는 △山林資源 保存 △太平洋地域에서의 科學技術의 平和的 利用 △動食物 種자의 共同生活 △太平洋 연안의 公害防止에 힘쓸것을 촉구하였다.

이大會에는 韓國을 비롯한 世界60 個國에서 2200여명의 自然科學과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11月 에너지節約의 달 맞아 動資部 다양한 행사 계획

動力資源部산하 에너지關聯 團體들은 11月 에너지節約의 달을 맞아 에너지節約의 汎國民的 生活化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開催한다.

지난 11月 14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動資部와 에너지管理公團에서는 금년에 3회를 맞이하는 에너지節約의 달 期間中에 에너지節約促進大會를 비롯하여 세미나 간담회, 설명회, 教育 에너지節約事例 發表會 등을 全國的으로 전개한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管理公團은 11月 18日 중앙국립극장에서 全國 에너지節約 促進大會를 열고,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 에너지使用承認 범위 확대 建物 新增築時 적용

政府에서는 최근 新築大型建物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利用 效率 向上시키기 위해 建物의 新增築時에 에너지使用計劃을 사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月14日 動力資源部에서 마련한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施行令 改正令에 따르면 현재 燃料 및 熱의 경우 石油환산 年間 5,000톤 이상 電氣의 경우 年間 2,000萬KWH이상 使用하는 工場 建物 및 기타시설을 新·增設하거나 新增築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使用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燃料 및 熱의 경우 年間 2,500톤이상 電氣의 경우 年間 1,000萬KWH이상으로 하향조정 적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 레이저光 1 피코초 발사 1兆와트 電力 生産

産業發達에 따르는 기존 에너지源의 고갈에 대응하는 代替에너지源의 개발이 美國 로체스터 大學에서 集中的인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光에너지는 몇몇 代替에너지源중에서도 가장 實用的인 것으로 지난 8월부터 美 로체스터 大學의 에너지研究所는 레이저光을 1피코초(1兆分의 1秒) 동안 발사해서 1兆W의 電力을 生産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實驗이 성공하면 기존의 美에너지 生産能力을 배증시킬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光波보다도 1,000배 가량 조밀한 光波를 만들수 있다.

「처핑」이라 불리는 레이저 新技術은 초단파 속에 에너지를 貯藏하였다가 1,000배로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物理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原理를 이용하여 物質이 溶解되거나 非結晶物로 전환되는 것을 동결시킴으로써 새로운 物質을 개발할 때 使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 對韓 LNG輸出增大 희망 印尼鑛業에너지相

인도네시아는 對韓國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더욱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수브르토 인도네시아 鑛業에너지相이 지난 9월 4日 밝혔다.

스브르트長官은 이날 인도네시아를 訪問한 崔昌洛 動資部長官이 수하르트大統領을 예방한 자리에서 배석한 후 가진 記者會見을 통해 韓國을 현재 10%이상의 높은 經濟成을 이룩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韓國과의 貿易이 더욱 增進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너지 데이터뱅크 IEA에서 90年代에 設置

國際에너지機構(IEA)는 유엔世界銀行(IBRD) 등과 協力하여 오는 90年代 初에 「世界 에너지 데이터뱅크」를 設立할 예정이다.

IEA는 오는 90年代에는 에너지不足으로 에너지需給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各國別 에너지政策의 기초인 에너지에 관한 데이터를 統一되게 정비할 것을 결정하고 우선 東京에서 「에너지 데이터 워크샵」을 開催하여 아시아 太平洋地域 데이터정비에 착수한 후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IEA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主要會員國으로 구성되고 있는 IEA會員國들의 에너지데이터 정비는 잘 進行되고 있는데 非會員 各國의 데이터정비가 不充分하여 이의 基準을 統一하고 各國의 에너지開發 計劃의 立案 實施등에 初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번 計劃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체르노빌의 터빈停止試驗 다른 發電所에서 拒否

소련을 訪問하고 귀국한 佛EDF의 장크·르쿠레 부총재는 記者會見에서 「소련 당국자가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4호기에서 행한 터빈정지시험은 다른 RBMK爐에서는 이전에 거부받고 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同 副總裁가 코바렌코 체르노빌 國際問題 담당 국장의 얘기로써 전한 바에 의하면,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4호기에서 행한 터빈정지시험은 이전에 다른 RBMK型爐인 Leningrad, Kursk, Smolensk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가 제안되었으나, 이들 發電所 책임자는 이 시험의 성과를 얻기 위해 원자로 보호회로를 운전중에 정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은 매우 위험을 수반한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거부했다.

## 石炭재로 새로운 金屬 美 로버트포드씨 發明

火力發電所에서 石炭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石炭재는 美國만해도 每年 6,000萬톤에 이른다 고 한다.

지금까지 石炭火力發電所에서 생긴 石炭재들은 달리 쓸 用途가 없어 쓰레기處理場으로 실려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난 7月末 알려진 바에 의하면 美國의 金屬學者이며 마르발라드社의 社長인 로버트 포드씨는 發電所에서 생기는 石炭재를 利用해서 새로운 金屬을 만드는 研究에 성공했다고 한다.

알루미늄 아연등에 5%에서 95%까지 석탄재를 다양하게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金屬은 강도가 높아 自動車 브레이크에 應用할 수 있으며 전기저항이 높아 電氣 機構에도 利用이 가능하다고 한다.

## 美國 알래스카炭鑛 韓國電力에 개발 제의

美國의 다이아몬드 알래스카石炭會社(DACC)가 韓國電力에 대해 알래스카州 앙커리지 西쪽에 위치한 대규모 炭鑛을 兩社 合作投資로 공동개발하여 韓電이 이 炭鑛으로부터 年間 100萬톤의 發電用 炭을 長期 購買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美商務省은 對韓石炭 수출 촉진을 위해 韓國政府에 이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뉴욕의 日刊經濟紙 저널 오브 커머스가 보도했다.

커머스紙는 DACC社는 이 炭鑛開發에 사용되는 중장비와 그 部品 자재 및 용역을 韓國으로부터 수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DACC社가 開發計劃을 세워놓고 있는 이 炭

鑛은 앵커리지 西쪽 80km, 쿠크인레트 北쪽 51km의 광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發電用 炭으로 사용되는 아연청탄이 多量 매장되어 있어 年間 1,000萬~1,500萬톤을 生産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國際原子力機構총회 朴肯植 科技處長官 참석

지난 9月21일부터 5日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第30次 國際原子力機構(IAEA) 총회에 韓國代表團 수석대표로 科技處 朴肯植장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는 國際原子力機構 창립 30주년 되는 해로 이를 記念하는 여러가지 行事가 함께 열렸는데 지난해 4월에 발생한 蘇聯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사고를 계기로 한 安全성의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어 이에 대한 국제협력증진방안이 論議되었다.

朴長官은 이번 총회에서 基調演說을 통해 國際原子力活動 및 核非擴散 政策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韓國의 原子力産業現況과 平和的 利用 政策을 소개하였다. 또한 原子力 先進國들에게 原子力발전을 위한 核心技術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會員國들과 原子力協力增進方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韓國의 原子力 平和利用 政策과 原子力活動에 대한 對外弘報를 강화하고 原子力 外交를 보다 効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IAEA 理事會 地域理事國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國際原子力機構는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 促進을 위해 1957年 유엔전문기구로 發足 되었는데 현재 韓國을 비롯해서 113個國이 會員國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機構의 총회는 매년 9月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다.

電力의 現況과 未來  
大韓電氣協會에서 세미나

大韓電氣協會는 電力産業의 발전상과 그 중요성에 대한 全國民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에너지토피아의 建設」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電力의 現況과 미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電力關係人士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辛廷植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 위원은 “長期電力需給展望”, 南廷一 한전기술연구원장은 “電力技術의 연구개발”, 盧在植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 수석전문위원은 “原子力發電과 환경보전”, 梁秉駿 TOP 경영컨설팅대표는 “電力料金政策”이란 주제발표를 하였다.



新·再生에너지 워크숍  
韓國動力資源研究所에서

韓國動力資源研究所는 亞·太地域 新·再生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정보 네트워크(INNERTAP) 워크숍 및 제 5차 운영위원회를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儒城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인도네시아·泰國 등 11개국에서 6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부문과 新·再生에너지기술부문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상호협동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리비아-이태리 合同에너지 세미나  
動資研 최수현박사 參加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開催된 리비아 이태리 合同에너지 세미나에 韓國側에서 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節約센터長 최수현 박사와 現地에서 現代엔지니어링社의 정영모 부장과 조천호 대리 등 2명이 合流하여 參加하였다.

이번 리비아-이태리 合同세미나에서는 연료로서의 天然가스의 役割, 에너지의 合理的인 利用, 太陽 및 風力에너지의 潛在的役割, 發電에 있어서의 石炭과 原子力, 에너지 價格 및 兩國의 에너지分野 相互協力 등 에너지와 관련된 問題를 폭넓게 다루었다.

이번의 리비아-이태리 合同세미나에 韓國側의 參加를 積極 權誘한 바 있는 리비아는 88年 11월에 韓國-리비아 兩國間의 合同에너지세미나를 리비아에서 開催하도록 韓國側에 提議하여 왔으며, 韓國國內委員會에서는 이를 신중히 檢討中에 있다.

第 7 回 石油세미나  
大韓石油協會에서

大韓石油協會에서는 石油의 수요구조 변화에 따르는 精油産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石油需要構造 變化와 對應」이라는 主題로 지난 1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이날 主題發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對應  
- 李福載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 (2) 석유수요 경질화와 시설고도화  
- 許東秀(호남정유 부사장)
- (3) 석유수요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崔震碩(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 韓國原子力産業會議에서 개최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日本原子力産業會議의 합동으로 「原子力技術의 成熟化를 위한 協力增大」라는 基調테마를 가지고 지난 11月 9일부터 11일까지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의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11月 9日 첫날 開會式은 金鍾珠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韓鳳洙 會長은 人事말을 통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나 日本이 새로운 에너지 증강을 위해 原子力技術의 向上을 도모하는 것은 時急한 과제로서 이러한 協力關係의 증대를 위해 韓日合同으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日程에 의한 토의과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앞으로 原子力産業발전에 기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에 日本代表團 團長인 白石晶一 九州電力 副社長은 오늘날 國際關係의 변화속에서 韓日間의 에너지分野의 協力이 요청되는 이때에 시기 적절하게 原子力技術 向上을 위한 방안을 상호 토의하게 된것은 의의깊은 일이며 原子力發電에 관한 管理 運轉 情報 開發 등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통해 原子力의 安全과 平和的 利用에 共同으로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이어 韓鳳洙 會長은 그간 原子力産業 발전에 기여한 九州 福岡放送 石橋問一 社長에게 感謝牌를 수여하였다.

다음날 10日과 11日에 개최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10(火) 開會세션  
 原子力發電所 運轉技術  
 原子力發電所 情報管理  
 原子力發電所 運轉, 補修要員의 資質向上
- 11.11(水) 原電 技術의 向上  
 原電의 定期檢査와 性能 總括討論  
 第1分科: 세션 I, II, III 中心  
 第2分科: 세션 IV, V 中心  
 閉會세션

## 폐기물은 第2의 資源 廢資源 再活用 세미나

지난 9月 11日 韓國資源再生公社(社長 李冲植)은 국립환경연구원 강당에서 제1회 廢資源 활용 세미나를 가졌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資源節約, 自然保護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石油 등 주요자원을 海外에서 수입해 오는 입장에서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날 세미나에는 延大 李承務교수(도시폐기물의 資源化), 安基熙박사(폐자원 再活用 법제에 관한 연구), 鄭南朝박사(熱分解 回收油의 有効利用에 관한 연구) 등 주제발표와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데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